

大全本 四書章句集注의 音注에 대한 一考察

— 『大學章句』와 『中庸章句』를 中心으로 —

이 규 필*

<目次>

- I. 들어가며
- II. 四書集注 音注의 性格과 役割
- III. 經書 解釋과 教育에서의 經學的 접근과 반성
- IV. 나가며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대전본 사서집주의 음주에 대해 고찰하고, 한문전문연수기관 혹은 대학교에서의 사서 강의에 음주의 활용이 필요한지, 또는 그것이 과연 유의미한지를 모색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조선시대의 사서 교육은 전적으로 대전본 집주를 통해 이루어졌고,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연수기관, 유관 단체, 대학의 한문학 관련 학과에서도 사서의 경우 대체로 주자집주를 교재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대전본 사서집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음주에 대한 정리는 사서집주 전체를 해야 되겠지만,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주요 논의는 『대학』과 『중용』에 실린 音注만으로도 가능한 바, 논지를 명료화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대학』과 『중용』의 음주에 한정하여 논하였다.

사서집주에 나타나는 음주의 형태는 1 聲調, 2 如字, 3 ‘A讀B’, 4 ‘音B’, 5 反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gdfeel@hanmail.net

切, 6 두 가지 이상 병용된 것, 이렇게 6형태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여섯 유형에 대한 정리와 고찰을 바탕으로 본고는 ‘新儒學的 經學觀 표명에 관한 문제’, ‘新儒學的 經文 解釋에 관한 문제’ ‘朱子 章句集注의 깊이 읽기와 새로이 읽기’에 대해 다루었으며, 아울러 ‘바른 음가 찾기와 언해음 고찰’, ‘경문의 문학적 장치-음악성의 이해’ 등의 지점을 함께 고찰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대전본 사서집주에 음주를 단 목적을 추론하고, 그를 통해 오늘날 四書 강의와 한문교육에서도 음주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유의미 하리라는 결론을 추출하였다.

【주제어】 四書音注, 聲調와 反切, 文法 機能 變化, 經文 解釋, 諺解音, 經文의 문학적 장치

I. 들어가며

“경전에 남은 말은 성인의 찌꺼기[糟粕]이다.” 수레바퀴를 깎았던 장인 輪扁의 말이다. 수레바퀴의 효용은 빈 굴통에서 생긴다. 빈 굴통을 만들며 말로 담을 수 없는 妙理를 깨달은 이 輪扁. 그는 虛子の 상징이다. 虛子인 윤편이 던진 한 마디 말 앞에 記誦之習의 얕은 지식으로 實學을 표방해온 後儒의 알량함이 무참하게 깨어진다. ‘성인의 찌꺼기’를 논밭 삼아 입에 풀칠을 해 온 몸이기에 때로 주제넘게 안간힘을 다해 항변해보고 싶었다. “선생께서 경멸하던 ‘성인의 찌꺼기’를 가지고 후인들은 얼마나 큰 학술과 문화를 이룬 줄을 아시는지요?” 하지만 정작 경전을 ‘성인의 찌꺼기’로 만든 것은 虛子인 輪扁이 아니라 그에게 항변하려 하던 나 자신이었다.

經傳의 글은 생활 속의 살아있는 말이 아니다. 죽은 사람의 말일 뿐 아니라 죽은 언어이다. 현실 속에서 입을 통해 피부로 생생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종이 속의 좁은 칸에 건조하게 진열된 문자들은 그 자체로

죽은 언어이다. 살아 있는 말은 발음은 물론이고 Accent나 Tone이 중요하다. 그에 비해 문자로만 남은 말, 곧 죽은 언어는 살아 있는 말에 비해 Accent나 Tone이 덜 중요하게 취급된다. 진열된 문자만으로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경전에 남겨진 성인의 말을 그야말로 ‘말라비틀어진 찌꺼기’로 만들고 만다.

輪扁이 경전을 두고 성인의 ‘찌꺼기’라고 한 것은 ‘언어는 사람의 생각을 오롯이 담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윤편의 말대로 언어는 眞意를 담아내기 어려울지 모른다. 더구나 음이 뒤섞이고 Accent나 Tone이 사라진 채 문자로만 남은 언어는 더더욱 眞意를 전하기 어렵다. 眞意 전달은 고사하고 오히려 본래의 의도와 정반대의 의미로 전달될 수도 있다. 이것을 염려한 선현들은 경전의 특정 글자 아래 音價 곧 音과 聲調를 표시해 놓았다. 죽은 언어 가운데 그나마 일말의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마련한 특단의 조치이다.

지난 시대에 책을 만드는 일은 오늘날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출판사에서 책을 간행하는 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단한 사업이다. 경제적, 物的 제약 요소가 한둘이 아니며, 기술상으로도 나무에 새기거나 쇠를 녹여 만들거나 어느 것이건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긴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노력과 공간을 할애하여 蠅頭의 작은 글자를 하나하나 만들어 넣었다. 그것은 그들이 이 音價 정보가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노력과 비용을 감수한 것이다.

선학들이 후학을 위해 이렇게나 심혈을 기울여 제공한 정보를 오늘날 글 읽는 나는 대체로 무시해왔다. 살아있는 Accent나 Tone을 전달하지 못해 염려한 선현들이 ‘여기를 눈 여겨 보라’고 온 힘을 다해 던져준 메시지를 무심하게 지나치고 외면해왔다. 수레를 끄는 妙理를 말로 전할 수 없다는 輪扁의 말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 준비해둔 것인데, 윤편의 말에 감히 항변하고자 했던 내가 도리어 성인의 말을 더욱 더 ‘말라비틀어진 찌꺼기’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글의 표면만 이해하고 넘어간 곳은 그렇다 치고 곡해하거나 정반대로 받아들

인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만약 나와 같은 후학이 나올 줄 알았다면 성인께서 아마 애초에 입을 다물어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본고는 이러한 다소 부끄러운 자기반성에서 시작하였다. 기왕에 四書集注의 音注를 고찰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왕의 연구는 순수하게 音韻學的 觀點에서 反切과 諺解音의 同異 문제만을 다루었고,¹⁾ 또 大全本 章句集注의 글자에 대한 음주는 제외한 채 四書의 經文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고에는 음주 정보가 경문 해석과 이해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조명해보고, 그를 바탕으로 경서의 해석과 교육에서 음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²⁾ 아울러 經文 외에도 集注에 제공된 음주 정보까지 고찰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다만 대전본 『大學章句』와 『中庸章句』만으로도 논자의 논지는 전달되는 바, 서술을 간명하게 하기 위해 고찰 범위는 두 서종에 한하고자 한다.

II. 四書集注 音注의 性格과 役割

四書集注에 나타나는 음주의 형태는 1 聲調, 2 如字, 3 ‘A讀B’, 4 ‘音B’, 5 反切, 6 두 가지 이상 병용된 것, 이렇게 6형태로 나누어볼 수 있다.

-
- 1) 성원경, 「반절의 기원과 내용 고」, 『국어국문학』 55~57합卷, 국어국문학회, 1972, pp.311-322; 임동석, 「사서집주 음주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19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2, pp.113-143; 임동석, 「사서집주 반절음 연구」, 『동방학지』 제125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4, pp.313-345; 임동석, 「사서집주 성조변별식 음주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26호, 2004, pp.63-94 참조.
 - 2) 주자 당시의 音注 표기의 실상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新編諸子集成』본(중화서국, 1933)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나, 본고는 우리나라에서의 한문교육과 경전해석 전통의 입장에서 살펴본 것이므로 조선에서 간행된 대전본 『사서장구집주』를 고찰 대상으로 한다. 둘 사이의 동이와 그 의미를 다루는 것은 후일의 과제로 남겨둔다.

이에 대해 성격과 역할을 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1. 聲調

특정 漢字 아래 平上去入의 四聲을 밝혀준 것을 말한다. 漢字는 聲調에 따라 訓釋이 변한다. 품사가 변하고, 그에 따라 문법 기능이 변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정 漢字 아래 성조를 밝혀주는 것은 해당 漢字의 품사가 변한다거나 혹은 해당 漢字가 대표 훈석이 아닌 다른 훈석으로 쓰였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실례를 몇몇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대학』 經1章 章句 : 去【上聲】其舊染之汚.
- ② 『대학』 傳9章 經文 : 桃之夭夭【次平聲】.
- ③ 『중용』 第20章 經文 : 時使薄斂【斂去聲】.
- ④ 『중용』 篇名 題下注 : 卷【上聲】之則退藏於密
『중용』 第26章 經文 : 一卷【平聲】石之多
- ⑤ 『대학』 章句序 : 亦幸私淑, 而與【去聲】有聞焉..
『중용』 제27장 經文 : 其此之謂與【與平聲】.

①의 ‘去’字는 본래 去聲으로, 그 자체가 높고 긴 소리인 去聲의 기준음이다. 대표 훈석은 ‘가다’ 또는 ‘거리’이다. 이것이 上聲이 되면 ‘제거하다’가 된다. ②의 ‘夭’는 去聲으로 ‘夭折’을 뜻하는 것이 대표 훈석인데, 平聲일 때는 ‘초목이 싱그러운 모습’의 의태어로 쓰인다. ③의 ‘斂’은 평성일 때는 범범하게 ‘거두어들이다’는 의미이지만 去聲일 때에는 ‘賦斂’이라는 특정한 의미로 쓰인다. ④의 ‘卷’은 上聲일 때는 ‘말다.’ 去聲일 때는 ‘말리다’인데, 이것이 平聲이 되면 ‘주먹’ 또는 ‘주먹만한 크기’라는 의미가 된다. 품사와 훈석이 모두 변한다. ⑤의 ‘與’는 平聲일 때는 虛辭나 語氣辭로 쓰이지만 去聲일 때는 ‘예(豫)’로 읽혀 발음도 변하고, 훈석도

‘참여하다’가 되어 역시 품사와 훈석이 모두 변한다.

聲調는 음주 정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사례는 많지는 않아 『대학장구』와 『중용장구』를 통틀어 총 59자의 글자 아래에 쓰였는데, 모두 음과 훈이 널리 통용되는 기초 한자이다. 難字나 僻字는 없다. 이 글자들에 대해 聲調 정보를 제공한 목적은 피교육자의 초등 교육을 마치고 막 고등교육을 시작한 初學의 피교육자³⁾에게 常用字의 성조와 그 변화에 따른 의미의 변화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또 教育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幾, 先, 爲, 好, 惡, 智, 治, 衣, 分, 易 등의 예에서 특히 잘 볼 수 있다.

2. 如字

如字는 2개 이상의 음으로 발음되는 漢字에 대해 해당 한자의 대표 聲調와 음으로 읽고, 그 音價에 속하는 訓釋으로 해석하라는 표시이다. 가장 먼저 발견되는 ‘大學’ 題目 아래에 ‘如字’라고 표시된 音注가 그 성격을 잘 보여준다.(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론하고자 한다.) 이 한 번을 제외하고는 공교롭게도 모두 『중용』에서만 발견된다. 사례도 가장 적어 총 4자에 한하는데, 이하 『중용』의 해당 글자들을 소개한다.

- ① 『중용』 제19장 經文 : 宗廟之禮, 所以序昭穆也【昭如字】.
- ② 『중용』 제20장 章句 : 自強【如字】不息.
- ③ 『중용』 제20장 章句 : 學而知【如字】也.
- ④ 『중용』 제31장 章句 : 生知【如字】之質.

- ① ‘昭穆’의 ‘昭’에 대해 ‘昭如字’라고 음주를 제공한 것은 ‘昭’를 ‘平聲’

3) 四書는 『소학』, 『사략』, 『통감』 등 초등교육을 이수하고 본격적으로 학문을 시작하는 初學者가 배운다. 「대학장구서」에서 언급한 ‘대학’ 입학 연령 16세, 곧 만15세는 전통적인 나이 구분으로 말하면 成童이다.

의 ‘소[止遙切]’로 읽고, 이 음가에 속하는 훈석 ‘고대 종묘에서 始祖廟의 왼쪽에 있는 祖廟’로 해석하라는 의미로, ‘去聲’의 ‘照[조]’와 혼동하지 말라는 당부이다. ②의 경우, ‘自強’의 ‘強’은 平聲의 ‘強健-健健’의 의미로 해석하라는 것이다. 『중용』 제20장 경문 ‘勉強【上聲】而行’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強’이 상성일 때는 ‘노력하다’ 또는 ‘억지로 애쓰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함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다. 곧 ‘自強不息’은 『주역』의 본의대로 ‘乾乾不息’으로 이해해야지 ‘스스로 노력해서 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경계이다. ③의 ‘知’ 역시 마찬가지이다. ‘知’에 ‘去聲’이라는 음주가 달린 곳은 『중용장구』에 10곳이 발견되는데, 이는 모두 ‘智’의 의미로 쓰인 곳이다. 따라서 이 글자 아래 ‘如字’라고 음주를 제공한 것은 平聲의 ‘知’로 해석하라는 메시지이다. 물론 ‘知止’나 ‘知味’ 등 너무나 상식적인 곳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음주가 제공되지 않았다.

如字 형태의 음주는 이상이 전부이다. 역시 四書 受學 과정의 피교육자에게 常用字의 성조와 그 변화에 따른 의미의 변화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또 教育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A讀B

‘A讀B’의 음주는 1) ‘A, 讀爲B’, 2) ‘A, 讀作B’, 3) ‘A, B同’, 4) ‘A作B’의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A讀B’라는 형태로만 본다면 ‘A를 B로 訓釋하라는 의미로 읽힐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訓釋만 같은 글자로 표시한 경우는 없다. 반드시 音價-음과 聲調-와 訓釋이 같아야 한다. 이 형태의 音注는 어떤 漢字가 2개 이상의 음과 혼일 때, 음주에서 지정하는 漢字와 같은 음가와 같은 훈석으로 읽고 해석하라는 표시이다.

1) 'A, 讀爲B'

- ① 『대학』 傳6章 經文：如好好色，此之謂自謙。【謙，讀爲慊。苦劫反。】
 ② 『대학』 傳8章 經文：之其所親愛而辟焉。【辟，讀爲僻】
 『대학』 傳10章 經文：辟則爲天下僂矣。【辟，讀爲僻】
 ③ 『대학』 傳10章 經文：節彼南山。【節，讀爲截】
 ④ 『대학』 傳10章 經文：迸諸四夷。【迸，讀爲屏。古字通用。屏，必正反，除也】

①은 '謙'을 '慊'과 같은 글자로 보아 해석하라는 표시이다. 그런데 뒤에 반절음이 부가로 표시되어 있다. 반절음이 제시하는 음가와 같은 글자의 음가와 혼석으로 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平聲의 '겸손'이라는 음가와 뜻으로 읽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때의 성조는 入聲이고, 음은 '겸'이며, 혼석은 '滿足'이다. ②의 '辟'는 古字에 辟(입성, 벽, 임금), 僻(입성, 벽, 치우치다), 避(거성, 피, 피하다), 譬(거성, 비, 비유하다)가 모두 한 글자 '辟'에서 분화된 글자였다. 이 때문에 음주를 통해 해당 글자를 지정해준 것이다.

③은 '節'과 '截'은 다른 글자이지만 음가와 혼석이 같은 예이고, ④의 '迸'과 '屏'은 通用字이다. 다만 ①과 ④는 音價를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어 뒤에 반절음을 부가 표시하였다.

이상 모두 6회에 한하며, 특이하게도 오직 『대학』의 經文에만 보인다. 經文 訓詁와 관련된 音注이므로 章句에는 보이지 않는다. 四書 受學 과정의 初學者에게 음가 정보와 通用字 정보를 교육하려는 목적과 함께 經文 考證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聲調'나 '如字' 형태의 음주와 달리 초보적이기는 하나 文字學 또는 본격 經學的 性格을 띠고 있는 음주라 할 수 있겠다.

2) 'A, 讀作B'

- ① 『대학』 傳1章 經文：大甲曰【大，讀作泰】。
 ② 『중용』 第13章 章句：費，用之廣也。【雲峯胡氏，曰費字，當讀作費用之費。】

①은 국가 기관이나 왕실 관련 인물의 존호에 대한 관용적 음가와 그 의미를 음주에서 밝혀준 것이다. ②는 ‘恂’는 平聲이 아니라 去聲으로 읽힐 때 ‘急’의 뜻이 있으므로, 그와 연관시켜 峻截의 의미를 지니는 ‘峻’으로 보라는 것이다. 이는 두 글자의 음이 近似하기 때문에 ‘음가에 의한 혼고’의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의미 연역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 音注이다. ③은 더욱 그러하여 ‘費’에서 ‘廣’으로의 의미 연역의 성격을 지닌 音注이다.

‘A, 讀作B’ 형태의 音注는 위의 3회에 한한다. ‘A, 讀爲B’의 경우가 통용자 성격을 질게 지니고 있다면 여기 ‘A, 讀作B’은 통용자라기보다 音注에서 지정해준 ‘B’ 字의 음가와 혼석으로 읽고 해석하라는 지시의 의미가 강하다. 요컨대 文字學이나 經學의 성격보다 문화적 관습과 의미 연역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음주라 할 수 있겠다.

3) ‘A, 與B同’과 ‘A, B同’

- ① 『대학』 傳10章 經文：上恤孤而民不倍。【倍，與背同。】
- ② 『대학』 傳10章 經文：辟則爲天下僂矣。【僂，與戮同。】
- ③ 『중용』 제27장 經文：爲上不驕，爲下不倍。【倍，與背同。】
- ④ 『중용』 제13장 章下注：下章放【上聲。與傲同】此。
- ⑤ 『중용』 제7장 經文：陷阱之中而莫之知辟也。【辟，避同】
- ⑥ 『중용』 제33장 經文：詩曰，奏假無言，時靡有爭。【假，格同】

이 음주는 同字 또는 通用字 소개이다. 따라서 음가와 뜻이 모두 같다. ①, ②, ③은 원래 한 글자에서 분화된 것은 아니지만 음가와 뜻이 같아 통용하던 글자의 예이다. ④와 ⑤는 원래 한 글자에서 분화된 글자로, 同字나 마찬가지로 예이다. ⑥은 字形과 字源은 서로 다르지만, ‘假’가 입성일 때에는 음가와 뜻이 ‘格’과 같아 통용의 연원이 오랜 글자이다.

4) ‘A作B’

① 『대학』 전3장 경문 : 緝蠻黃鳥. 【緝, 詩作綿】

‘緝’은 평성 ‘眞韻’ ‘武巾切’의 ‘줄’ 또는 ‘새끼’의 뜻을 지닌 글자이다. ‘綿’은 평성 ‘仙韻’ ‘武延切’의 ‘실’ 또는 ‘솜’이라는 뜻을 지닌 글자이다. 여기에서는 두 글자의 본래 訓釋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새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로서 音價만을 빌어쓴 것이다. 그런데 『시경』 「황조」편에는 본래 ‘綿蠻’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대학』에서 인용될 때 ‘緝蠻’으로 옮겨졌고, 이 때문에 『시경』 원문의 본래 글자를 찾아 표시해주어 그 음가를 밝혀 정해준 것이다. 즉 ‘緝’과 ‘綿’은 본래 同字도 通用字도 아닌, 음가만 비슷한 완전한 별개의 글자이다. 말하자면 ‘A作B’의 경우는 비슷한 음가 때문에 의성어를 표기할 때 혼용한 것이기에 以經證經의 經學的 입장에서 원 글자를 밝혀주고 그 음가로 읽으라고 지시해준 것이다. 집주의 ‘當作B’와 비슷한 역할과 성격을 지닌다 하겠다.

4. 音B

어떤 漢字 ‘A’의 음가를 다른 漢字 ‘B’로 나타낸 형태이다. 일견 訓釋과 아무런 상관없이 음가만 지시해주는 형태의 음주로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 이 형태의 音注가 가장 빈도수가 높으며 또한 가장 많은 기능과 성격을 아우르고 있다. 성격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순수한 音價 정보 제공

말 그대로 訓釋과는 어떠한 상관성도 없이 오직 해당 漢字의 음가를 다른 漢字로 밝혀준 경우이다.

- ① 『대학』 「장구서」 : 晦盲否塞, 反覆沈痼. 【音固】
- ② 『대학』 「장구서」 : 孟子沒而其傳泯【音閔】焉.
- ③ 『대학』 전3장 경문 : 於戲, 前王不忘. 【於戲, 音烏乎.】
- ④ 『대학』 전3장 장구 : 磋以鑿【音慮】錫.
- ⑤ 『대학』 전9장 경문 : 一言僨事. 【僨, 音奮.】
- ⑥ 『대학』 전9장 章句 : 小雅蓼【音六】蕭.
- ⑦ 『대학』 전10장 경문 : 媚疾以惡之. 【媚, 音冒.】
- ⑧ 『중용』 제7장 經文 : 納諸罟獲陷阱之中. 【罟, 音古】
- ⑨ 『중용』 제20장 章句 : 鹵【音魯】莽滅裂之學.

위에 든 사례들은 모두가 訓釋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음가 정보만 제공한 경우이다. 기능과 성격을 따져보면 두어 가지를 추정할 수 있다. 하나는 四書에 처음 나오는 難字에 대한 음가 정보 제공이다. 또 하나는 僻字의 음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蓼’은 ‘료’로도 발음되고 ‘륙’으로도 발음되는데, 이중 후자임을 분명히 밝혀준 것이다. 그리고 하나는 感歎辭나 虛辭로 假借되어 쓰이는 글자의音を 밝혀준 것이다.

2) 音價를 통한 품사와 혼석 정보 제공

다른 글자를 가지고 해당 글자의 음가를 명시함으로써 해당 글자가 특정 품사로 쓰였다거나 특정한 訓釋으로 쓰였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① 『대학』 「장구서」 : 夫【音扶】以學校之設.
- ② 『대학』 전3장 經文 : 樂其樂利其利. 【樂, 音洛.】
- ③ 『대학』 전10장 章句 : 采【音菜】地.

①의 ‘夫’는 본래 평성 ‘虞韻’ ‘甫無切’의 ‘성년 남자가 대표 음가와 대표 혼석이다. 그런데 ‘扶’로 읽으라는 것은 평성 ‘虞韻’ ‘防無切’로 읽고

발어사로 보라는 것이다. ②의 ‘樂’은 ‘악[五角切]’, ‘낙[盧各切]’, ‘요[五敎切]’에 따른 품사와 훈석 변화 표시이다. 그런데 ‘夫’의 경우 「대학장구서」를 비롯하여 『대학』과 『중용』에 10회⁴⁾나 달하는가 하면 ‘樂’ 字의 경우도 이곳 외에 무려 6회⁵⁾나 달려 있다. ③의 ‘采’는 본래 上聲인 글자로 ‘采擇’, ‘采集’ 등의 뜻을 지닌 자인데 이 글자에 대해 ‘音采’라는 음주 정보를 표시한 것은 ‘采’를 去聲으로 읽어달라는 메시지이다. ‘采’가 去聲이 되면 ‘古代 卿大夫의 封邑’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위의 글자들 중 難字나 僻字는 없다. 모두 쉬운 글자이고, 전용되는 품사와 훈석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 글자들이다. 이러한 글자들에 대해 음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 목적이 단순히 ‘발음’ 표시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역시 모두 서서과정에 입문한 初學者들에게 성조의 변화에 따른 품사와 훈석의 변화를 반복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 라고 생각된다.

3) 음가와 훈석이 같은 글자 제시.

앞의 1)과 2)는, 음가를 표시하는 글자 B와 원 글자 A의 사이에 訓釋 자체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固’는 ‘瘤’의 음가를 명시하여 ‘瘤’의 품사와 훈석을 명확히 지정해주는 역할을 할 뿐, ‘固’의 훈석과 ‘瘤’의 훈석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 ‘鹵’와 ‘魯’, ‘樂’과 ‘洛’ 등 모두 그러하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음가는 물론이고 훈석까지 같은 글자를 제시하여 해당글자의 음과 훈석을 명확히 지정하는 경우이다.

① 『중용』 제6장 장구 : 何以與【音預】此.

4) 大序, 大傳10經, 中序, 中5經, 中16經, 中20經, 中20注, 中26經, 中32經, 中32注.

5) 『대학』 전3장 경문, 전10장 경문, 『중용』 제1장 경문, 제6장 章句, 제15장 경문, 제15장 章句, 제17장 경문에 音注가 달려 있다.

- ② 『중용』 제31장 경문 : 民莫不說.【說, 音悅.】
 ③ 『중용』 제30장 경문 : 辟如天地之無不持載.【辟, 音譬.】

①의 ‘與’에 대해 ‘音預’라고 한 것은 곧 ‘預’의 음가와 훈석대로 읽으라는 것이다. 上聲 ‘余呂切’의 ‘주다’도 아니고, 平聲 ‘以諸切’의 허사도 아니고, 去聲 ‘羊洳切’의 ‘참여하다’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②의 ‘說’은 곧바로 ‘悅’로 읽고 해석해달라는 뜻이다. ③의 ‘辟’는 ‘譬’로 읽고 해석해달라는 것이다. 앞의 ‘A, 讀爲B’와 같은 역할,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4) 예외적으로 발음되는 漢字에 대한 음가 정보 제공

- ① 『중용』 제16장 經文 : 詩曰, 神之格思, 不可度思, 矧可射思.[射, 音亦]
 ② 『중용』 제29장 經文 : 詩曰, 在彼無惡, 在此無射. 庶幾夙夜, 以永終譽.[射, 音妬. 詩作敦.]

이 경우는 오직 예외적으로 발음되는 漢字에 대해 그 음가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古經의 古音을 밝혀주는 고급정보로, 역시 교육적 목적과 함께 정확적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특정 漢字를 특정 음가로 읽는 문화적 관습 정보 제공

- 『중용』 제18장 經文 : 武王纘大王.【大, 音泰.】

앞의 ‘大甲’에서의 ‘大, 讀作泰’와 같은 역할,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론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5단락에 걸친 논의를 정리하면 본질 ‘音B’는 초학자들에게 四書에 나오는 難字와 僻字의 음가 정보 제공, 이례적인 음가 정보와 문

화 관습상의 음가정보 제공, 品詞와 訓釋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5. 反切

反切은 두 개의 漢字·앞 글자의 초성과 뒷 글자의 衆星終聲을 가지고 어떤 漢字의 음가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反과 切의 차이는 없는 듯 하며, 『대학장구』와 『중용장구』에서는 ‘切’로 된 곳이 총 4회 발견되고, 나머지 120여 회는 모두 ‘反’이다.(참고로 지금의 『한어대사전』에는 주로 ‘切’로 표기되는 듯하다.)

1) 難字 또는 僻字의 음가 정보 제공

그다지 어려운 글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四書에 처음 나오는 글자들이다. 난이도가 높은 글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문장에 자주 사용되는 글자가 아닌 글자들이다. 이처럼 발음이 짐작이 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흔히 쓰이지 않는 難字 또는 僻字의 음가를 밝혀주었다.

- ① 『중용』 제12장 장구 : 嚙緊【居忍反】爲人處活潑潑【普活反】地.
- ② 『중용』 제13장 장구 : 飗【悲巾反】風伐柯之篇.
- ③ 『중용』 제27장 장구 : 猶燭溫之溫.【燭, 似廉似林二切.】
- ④ 『대학』 전3장 경문 : 瑟兮僴兮.【僴, 下版反】

위는 四書 受學 과정에서는 한 번씩 나오는 글자들이다. ‘飗’은 예외적으로 『맹자』에서 『시경』을 인용할 때 나온다. 하지만 그 외의 기사에는 보이지 않는다. 또 漢字의 대부분이 形聲字자임을 감안할 때 발음이 짐작 가는 글자들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흔히 쓰이는 글자는 아니기 때문에 四書 受學 科程의 학생들에게 反切을 통해 음가를 명확히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글자들이다.

2) 한정적인 용례의 특정한 음가

- ① 『대학』 전3장 장구 : 瞻彼其澳, 菴竹猗猗 【澳, 於六反】
 ② 『중용』 제20장 경문 : 既稟稱事. 【既, 許氣反. 稟, 彼錦反, 力錦反.】

①의 ‘澳’은 ‘於六反[옥]’일 때는 작은 물굽이로 이곳 ‘기옥’이 여기에 해당한다. ‘烏到切[오]’일 때는 항구나 灣으로, 澳門[마카오]가 대표적인 예이다. ②의 ‘既’가 ‘許氣反[희]’로 발음될 때에는 오직 ‘祿料’의 의미에 한정되어 쓰이며, ‘稟’이 ‘力錦反[름]’으로 발음될 때도 거의 ‘양식’ 또는 ‘(국가)곡식 창고’라는 의미로만 쓰인다.

3) 聲調와 音이 달라지면 품사나 훈석이 달라진다는 정보 제공

- ① 『대학』 「장구서」 : 燦然復 【扶又反】 明於世.
 『중용』 「장구서」 : 沈潛反復. 【芳服反】
 ② 『중용』 제30장 경문 : 覆疇. 【疇, 徒報反.】
 ③ 『중용』 「장구서」 : 提挈 【苦結反】 綱維.

①의 ‘復’는, 『대학』 「장구서」에는 이 앞에 ‘復’ 자가 두 차례 나오는데, 모두 ‘회복하다’의 뜻으로 쓰였다.(‘以復其初’와 ‘無往不復’) 이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절을 통해 성조와 음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품사가 달라진다는 정보를 표시하였다. 『중용』 「장구서」에서는 ‘沈潛反復’, ‘復取石氏書’에서 바로 연달아 두 글자의 품사가 다르게 쓰였기 때문에 각각 반절을 통해 표시해주었다. ②의 ‘疇’는 ‘徒報反[도]’일 때 去聲이고, ‘달개’라는 뜻을 지닌다. 그런데 ‘疇’는 ‘直由切[주]’이 대표 음가로, 平聲이고. 이때는 ‘휘장’ 곧 ‘커텐’의 뜻을 지닌다. 품사는 변하지 않지만 훈석이 달라졌다. 여기서는 ‘휘장’으로 보지 말라는 메시지이다. ③의 ‘苦結反’은

성조가 ‘입성’임과 음이 ‘결’임을 표시한다. ‘擘’이 入聲일 때 두 개의 음이 있는데, 하나는 ‘결’이고, 또 하나는 ‘글’이다. ‘결’일 때는 동사이며 ‘거느리다’의 뜻이고, ‘글’일 때는 부사이며 ‘다만’이라는 뜻이다.

- 4) 같은 음, 같은 성조이지만 품사나 훈석을 구분해줄 필요 있을 때 反切 사용.

앞의 3)에서는 해당 글자의 품사나 훈석 달라지면 음과 성조가 변화하는 예의 반절음 표시에 대해 다루었다. 하지만 글자의 품사나 훈석이 달라져도 음과 성조가 크게 변하지 않는 글자도 있다. 이러한 글자들에 대해 反切音을 명기해주어 해당 글자가 특정 품사나 특정 훈석으로 사용되었다는 정보를 전달해준다.

- ① 『대학』 經1章 章下注 : 別【必列反】爲次序。
『중용』 제7장 장구 : 辨別【彼列反】衆理。
② 『중용』 제7장 경문 : 不能期月守。【期, 居之反。】
③ 『중용』 제14장 경문 : 失諸正鵠。【鵠, 工毒反。】

①의 ‘別’은 ‘별도로’라고 부사로 쓰이거나 ‘변별하다’라고 동사로 쓰이거나 성조는 모두 입성이며 음에도 큰 변화가 없어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반절음을 명기하여 품사나 훈석이 다르다는 것을 표시해주었다. ②의 ‘期’는 ‘居之反’과 ‘渠之反’의 두 개의 반절이 있는데, 모두 발음이 흡사하고 성조도 平聲으로 같다. 그런데 ‘渠之反’이 대표 음가요 훈석으로 ‘기약’ 또는 ‘한정’의 뜻을 지니고, ‘居之反’일 때는 ‘暮’의 뜻으로 특정되어 사용된다. ③의 ‘鵠’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입성에 같은 음일지라도 ‘胡沃切’일 때는 새의 이름 또는 그 새와 같은 흰색을 나타내지만, ‘工毒反’일 때는 ‘箭侯’ 곧 標的의 뜻으로 사용된다.

간략히 살펴본바 四書 過程의 초학자들에게 기본 한자의 음가를 가르

쳐 주는 역할을 한다. 難字와 僻字의 음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아울러 이례적인 용례의 僻音 정보와 특정 음에 대한 문화적 관습 정보를 제공하여 초학자들을 반복적으로 교육한다. 아울러 음가에 따른 문법 기능 및 훈석 변화와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고 이를 반복적으로 교육시키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同字와 通用字 등의 정보도 音注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文字學의 성격도 일부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음주가 주는 정보를 세심하게 관찰하면 문법 기능과 훈석을 철저히 따져 四書의 經文과 章句集注를 정밀하고 명확하게 재검토하여 새로운 해석을 열 수 있으리라는 진단이 가능해진다.

III. 經書 解釋과 敎育에서의 經學的 접근과 반성

1. 新儒學的 經學觀과 經文 解釋의 측면에서

대전본의 音注 정보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전본의 音注 정보가 경문 해석에서 宋元 新儒學的의 經學的 觀點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⁶⁾ 따라서 音注 정보에 대한 분석이 新儒學的의 經文 해석을 보다 분명하고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다. 앞 장에서 음주의 성격과 역할을 일별하여 그 가능성을 진단하였다면, 본 장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6) 대전본이 만들어진 것은 1415년 곧 명나라 成祖 永樂 13년인데, 대전본의 집주와 소주에 수합된 학자들은 宋元의 주자학자이다. 대전본 『대학중용장구집주』의 음주는 많은 경우 『禮記註疏』의 음주를 계승한 것이다. 다만 특정 지점에서 주자 이래 신유학 경학해석의 관점을 지니고 있는 지점들이 적지 않다.

1) 新儒學的 經學觀 표명에 관한 문제

경서 注釋書에서 音注는 반드시 주석자 또는 그 학파의 해석 관점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경문 해석에서 글자의 音價와 訓釋, 句讀와 章句 분절, 글자의 順序와 出入 등에 대한 변증이 제일 우선되는 고려 사항이므로, 역대 경서 주석가들은 이 지점에 특히 예민한 관심을 쏟았다. 그중 여기서는 음주 정보에 담긴 新儒學的 經學觀 表明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① 『大學』題下 音注 : 大學章句大全【大, 舊音泰, 今讀如字.】

‘大學’은 본래 국가 교육기관의 이름이었다. 그렇다면 국가 기관이나 관직 앞의 ‘大’를 모두 ‘泰’로 읽듯이 그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텍스트인 『大學』 역시 ‘태학’으로 읽어야 한다. 그런데 주자는 이에 대해 ‘구음은 泰이지만 지금은 글자대로 읽는다.[大, 舊音泰, 今讀如字.]’라는 음주를 달았다. ‘태학’이 아니라 ‘대학’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이다.

『大學』은 본래 『小戴禮記』 49편 중 제42편에 실려있던 것인데, 北宋시대 程子 형제가 表彰하고 南宋의 주자가 편차를 새로이 정리하여 章句를 펴내면서부터 『논어』, 『맹자』, 『중용』과 함께 四書로 병칭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朱子 이래 이 책은 ‘태학’이 아니라 ‘대학’으로 발음되었다. 주자가 이 책의 내용을 ‘大人之學’으로 규정하고, ‘대’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주자는 왜 ‘대’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일까? 주자는 『大學』이 태학에서 가르치는 텍스트가 아니라 ‘大人之學’을 담은 텍스트라고 규정하였다. 그를 근거로 ‘대학’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주자가 ‘대학’을 ‘大人之學’으로 규정한 근거는 무엇이며, 또 ‘大人의 의미’는 무엇일까?

본래 주자의 ‘大人之學’은 북송의 학자 司馬光(1019~1086)과 呂大臨

(1046~1092)의 ‘大人之學’ 견해를 이어받은 것이다. 그런데 大人의 함의는 조금씩 다르다. 司馬光의 ‘大人’은 ‘學之大者’에서 따온 것이다.⁷⁾ 治人을 위한 治者의 학문이라는 의미인데, 이럴 때의 ‘大人’은 ‘大道를 지향하는 사람’이다. 呂大臨의 ‘大人’은 ‘有德者’를 가리킨다. 『맹자』에서 말하는 ‘大人’, 즉 ‘君子’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大學’은 운영주체인 국가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이념인 道에 방점이 찍힌다. 여기에서 지향하는 학문의 도는 ‘군자의 도’이고, 가르치는 책은 ‘군자의 도를 담은 책’이 된다. 이 때문에 태학이 아니라 대학이며, 『태학』이 아니라 『대학』이다. 주자의 ‘大人’은 사마광과 여대림의 ‘大人’을 포함하면서도 ‘成人’의 의미에 무게 중심을 둔 말로, ‘小人’ 즉 兒童과 대가 되는 개념이다. 16세에 入學한다는 점을 주목한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或問』에서는 ‘大學, 大人之學, 此對小子之學言之也.’라고 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교육기관이든 그곳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텍스트든 ‘대학’으로 발음하는 것이다.⁸⁾ ‘今讀如字’라고 한 짧은 音注에는 단순한 발음의 是非正誤의 문제가 아니라 經書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사상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했던 程朱 이래 新儒學派의 핵심 經學觀이 담겨있는 것이다.

2) 新儒學의 經文 解釋에 관한 문제

大全本 四書의 音注에 程朱 이래 新儒學의 經學觀이 담겨있다면, 新儒學의 經文 解釋 역시 音注를 통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로 이것이 大全本 四書의 經文과 章句에 音注를 넣은 중요한 목적 중에

7) 참고로 司馬光의 견해와 비슷한 견해를 제출한 조선의 학자가 있다. 17세기 경학가 尹鐸(1617~1680)가 바로 그이다. 그는 ‘大學之道, 言學之道大’라고 하여 주자 서문 첫머리의 大學도 교육기관명이 아니라 道의 성격으로 보았다.

8) ‘大學’의 음과 의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규필, 「조일 경학계의 풍토와 주석 양상 비교」, 『남명학연구』 제52집, 남명학연구소, 2016, pp.185-189 참조.

하나이기도 하다.

① 『대학』 傳8章 경문 : 之其所親愛而辟焉. 【辟, 讀爲僻.】

章句 : 辟, 猶偏也. 【朱子曰古注辟音譬, 窒礙不通. 只是僻字便通.】

예문은 『대학』의 전8장으로 ‘修身과 齊家’를 다룬 곳이다. 이 經文의 ‘辟’ 자에 대해 주자는 ‘僻’으로 읽으라고 하였고, 주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讀爲僻’이라는 음주를 달았다. 이를 반영하여 『대학언해』에서도 ‘之지지기所소親친愛愛〰 | 而이辟僻焉언’이라고 음을 달았다. 이곳 경문에 대해 본래 鄭玄의 古注에는 ‘之’를 ‘適[마주하다. 가다]’의 뜻으로 보고, ‘辟’을 ‘辟音譬’라고 하여 ‘譬’ 곧 去聲 ‘비’로 읽고 ‘喻[이해하다]’의 뜻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상대를 마주하여 마음으로 헤아려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 “사람이 자기가 친하게 여기고 아끼는 상대를 마주하면 자기의 마음에 비유하여 이해한다.”라고 해석하였으며, “내가 왜 이 사람을 친하게 여기고 아끼는가? 그 사람이 아름다운 德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吾何以親愛此人? 非以其有德美與.]”라고 부연하였다. 孔穎達 역시 글자의 음과 훈을 정현과 똑같이 보아 “가령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덕이 있음을 본다면 내가 친애하는 바의 사람을 위해 마땅히 반성하여 스스로 나의 마음에 깨달아야 한다. [設我適彼人, 見彼有德, 則爲我所親愛, 當反自譬喻於我也.]”라고 하였다. 하지만 주자는 古注대로 해석이 보면 문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부정하였다. 그리고 『대학』 전10장의 ‘辟則爲天下僂矣’에 근거하여 이 곳의 ‘辟’을 ‘僻[僻, 치우치다]’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② 『중용』 제11장 경문 : 素隱行怪.

장구 : 素, 案漢書, 當作索. 【山客反】

②는 『중용』의 핵심 의리를 담고 있다고 여겨져 분분하게 논란이 되

어은 章이다. 정현은 ‘素’를 ‘儻[향하다]’로 보았다. 정현의 주석대로라면 ‘害를 避할 곳을 향하여, 몸을 숨기고 晷홀한 짓을 행한다.[方鄉辟害, 隱身而行詭譎.]’라는 뜻이 된다. 또 三國時代 학자 周生烈은 ‘素’를 ‘無德’으로 보아 ‘素隱’ 곧 ‘無德而隱’의 뜻으로 보았다. 앞의 설들에 대해서도 주자는 문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漢書』와 『史記素隱』의 注에 바탕하여 ‘찾다’의 뜻을 지닌 ‘索’으로 보았다.⁹⁾ 그런데 ‘素’은 음가가 ‘蘇各切[삭]’일 때에는 ‘새끼 또는 노끈’라는 뜻을 지닌 명사가 된다. 이는 주자의 본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말라고 해당 장구의 글자 아래 ‘山客反[색]’이라는 음주를 달아놓은 것이다. 따라서 ‘山客反’이라는 음주는 경문 원문의 ‘素’를 ‘색’으로 읽고 ‘찾다’는 뜻으로 해석하라는 것인데, 諺解에도 이 주장을 반영하여 ‘素色隱은行행怪과’라고 음을 달아놓았다.

음주는 많은 경우 초학자들 위해 한자의 기본 음가를 가르쳐주거나 문법적 기능을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또 그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처럼 경문 해석의 첨예한 지점에서 新儒學의 經文 解釋을 반영하고 있다. 四書의 경문 해석과 교육에서 이러한 지점에 대한 환기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2. 朱子 章句集注의 깊이 읽기와 새로이 읽기를 위하여

1) 經文과 集注 解釋에서 주석자의 의도 파악이란 측면에서

성조가 다르면 품사와 훈석이 달라지는 예에 대해서는 앞 장에서 누차 예시하였다. 대표적으로 好나 惡에 대해 上聲이, 治에 대해 平聲과 去聲이, 知에 대해 平聲과 去聲이 표시된 음주들이었다. 이러한 경우는

9) 『한서』 「예문지」에서 劉歆이 선가류의 인물을 논할 때 中庸의 이 구절을 인용하여 ‘素隱’의 의미로 풀었고, 顏師古 역시 같은 의미로 해석하였다. 주자는 그 주장이 근리하다고 생각하였다.

보편적인 문법 감각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注釋者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음주도 있다.

- ① 『대학』 경1장 장구 : 所處【上聲】而安.
 ② 『대학』 전6장 장구 : 閒居, 獨處【上聲】也.

‘處’는 보통 去聲으로 ‘처소’이다. 그런데 上聲은 품사가 달라져 ‘처하다’가 된다. ①은 ‘처한 곳에 편안하다.’는 뜻인데, 보통 所가 있어서 크게 눈여겨보지 않고 넘어가지만 ‘處’는 동사이다. ②도 마찬가지이다. ‘獨處’는 ‘홀로 있는 곳이다.’가 아니라 ‘홀로 있음이다.’이다. 따라서 傳6장의 經文 ‘小人閒居’는 ‘소인이 혼자 있는 곳에서’ 또는 ‘사사로이 지내는 거처에서’가 아니라 ‘혼자 있으면서’, ‘사사로이 지내면서’라고 해석해야 한다.

- ③ 『대학』 傳2章 章句 : 不可略有間【去聲】斷【徒玩反】也.

‘間’은 平聲일 때 ‘사이’ 또는 ‘요사이’이고, 去聲일 때 ‘사이를 두다.’로 된다. ‘斷’은 『대학』에 두 번의 음주가 달리는데, 한 번은 이곳, 또 한 번은 전10장 경문 ‘如有一介臣斷斷兮’의 ‘斷’ 아래 ‘丁亂反’라고 한 곳이다. ‘斷’은 上聲 ‘都管反’일 때는 ‘단절’의 의미로 쓰이지만 ‘徒玩反’일 때는 ‘잃어버리다.’ ‘마치다’의 뜻이 된다. 위의 예문은 日新을 강조하는 章句의 문장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사이가 지거나 단절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사이를 두거나 놓쳐서는(혹은 마쳐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 가깝다. 日新하는 주체의 의지와 능동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音注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독자에 전달하기 위해 남겨 놓은 것이다. 이는 『논어』 「자한」 제16 「川上之嘆」장 아래 集注의 ‘欲學者時時省察, 而無毫髮之間【去聲】斷【徒玩反】也.’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배우는 이의 의지와 능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 아래 음주를 단 것이다.

④ 『중용』 제1장 경문 :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離, 去聲】 (중36면)

⑤ 『중용』 제25장 경문 : 道, 自道也. 【道也之道, 音導.】

‘離’는 평성일 때 ‘이별’ 혹은 ‘떨어지다’이지만 거성일 때는 ‘떨어뜨리다. 버리다’의 의미이다. 道는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떨어뜨리려야 떨어뜨릴 수 없는’ 또는 ‘방기하려야 방기할 수 없는’ 것이다. ⑤는 ‘道’를 ‘導’와 같은 음가로 보아 그 훈석에 따라 해석하라는 의미이다. ‘道’는 일반적으로 上聲의 ‘길’ 또는 ‘길을 가다’라는 것이 대표 성조이고 대표 훈석이다. 이때 ‘自道’는 ‘스스로 가는 것’이 된다. 그런데 ‘導’와 같은 음가로 보게 되면 성조가 去聲으로 바뀌어 ‘踐踏’의 의미가 된다. ‘自道’를 ‘自行’이라고 한 주자의 주는 결국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란 의미이다. 말하자면 이렇게 보아야 곧 ‘능동적인 실천의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⑥ 『중용』 제10장 章句 : 不報無道, 謂橫 【去聲】 逆之來, 直受之而不報也.

위의 문장은 橫과 直이 대비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橫逆의 橫을 대표 음가와 훈석인 平聲 ‘橫方’ 또는 ‘橫置’의 의미로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방지하려고 ‘去聲’임을 표시하여 ‘不順理’, ‘枉屈’의 의미를 명시한 것이다.

⑦ 『대학』 전6장 章句 : 此君子所以重 【去聲】 以爲戒而必謹其獨也.

인용문은 誠意章의 장구이다. 『대학』 誠意章의 經文에는 두 번의 ‘君子必慎其獨也.’가 나온다. 이 때문에 章句의 이 문장에서 ‘重’을 ‘거듭’으

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해석하기 쉽다. 하지만 그것을 염려하여 ‘더더욱’, ‘엄중히’ 또는 ‘지극히’의 뜻으로 보라고 ‘去聲’이라는 음주를 달아놓은 것이다.

2)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音注에 주의하여 읽을 때 주자집주의 해석에서 종래에 습관적으로 해오던 해석과 다른 해석을 내어놓을 가능성도 열린다.

① 『중용』 제12장 경문 : 君子之道, 費而隱. 【費, 符味反.】

‘費’의 해석 문제이다. 위의 경문에서 ‘費’를 두고 주자는 ‘用之廣也[작용의 넓음이다]’이라고 하였다. 이는 鄭玄 이래 古注에서 ‘費’를 ‘弗’ 곧 ‘俺’의 의미로 보아 ‘費而隱’을 ‘도가 어그러지면 숨는다.’라고 본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費’의 본래 음과 훈석대로 ‘用’의 의미로 본 것이다. 이 역시 신유학의 해석이다. 하지만 ‘廣’의 의미는 근거한 곳이 없고 주자가 연역한 것이다. ‘鳶飛魚躍’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도의 작용이 세상 어디에나 퍼져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符味反’의 ‘費’에는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훈석이 있다. 『楚辭』 「招魂」의 “晉制犀比, 費白日些.”에 용례가 보이는 ‘光貌[밝다]’라는 훈석이다. ‘費’의 의미를 주자와 같이 보면서도 ‘廣’을 대신해 ‘光’을 대입해보면, ‘用之光也[작용이 환히 드러남이다]’라는 뜻이 된다. ‘작용이 세상 어디나 무엇에서나 환히 드러난다.’는 말이므로 주자가 연역한 의미 ‘廣’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또 제11장의 3절이 ‘言其上下察也.’로 끝나는데, ‘察’이 바로 著明의 뜻으로 ‘환히 드러나는 것’이므로 문장상의 연결도 매끄럽다. 그렇다면 ‘費’를 ‘光’으로 보는 것은 어떨까? 『書經』 ‘庶績咸熙’의 ‘熙’를 蔡沈(1167~1230)이 ‘廣’으로 해석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해볼 문제이다.

② 『중용』 제14장 經文 : 在上位, 不陵下; 在下位, 不援上. 正己而不求於人則無怨. 上不怨天, 下不尤人. 【援, 平聲.】

‘援’의 해석 문제이다. ‘援’은 去聲일 때 ‘배반하다’, ‘사납게 굴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下位에 있으면서 윗사람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앞의 ‘陵’과 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 쉽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것을 염려한 때문에 ‘平聲’이라고 성조를 표시하여 경계하였다.

그렇다면 ‘平聲’일 때 ‘援’은 무슨 뜻일까? 번역서에 따라 ‘끌어내리다’의 의미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大全本 小注에 소개된바 남송의 경학가 陳淳(1159~1223)이 ‘吾居下位, 則不攀援於上’이라 한 것에 바탕하여 우리 언해에 ‘우홀 援티 아니 호고’라고 諺譯하고, 또 1922년 儒教經典講究所에서 펴낸 諺譯叢書 시리즈 『언역 중용』에서 ‘우을 잡아 당그지 안이 하고’로 직역하고 『義解』에서 ‘우을 攀援치 안이 하고’라고 풀 것에 근원한 것으로 보인다. 『漢語大詞典』와 『中文大辭典』에도 ‘攀緣’ 또는 ‘牽援’이라는 훈석이 있으므로 ‘끌어내리다’로 해석해도 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漢語大詞典』을 살펴보면 ‘援’에 매우 흥미로운 훈석이 보인다. ‘依附’가 그것이다. 이 훈석을 따른다면 ‘윗사람에게 아부하여 그 권력에 기생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攀援이 꼭 ‘끌어내리’는 행위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뒷 문장 ‘正己而不求於人’과 연결하여 해석한다면 ‘아부한다’라는 훈석이 ‘끌어내리다’라는 훈석보다 한결 近理해 보인다.

하지만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해진다. ‘援’이 平聲일 때 ‘怨’, ‘恨’, ‘憾’의 뜻도 지닌다. ‘不陵下’, ‘不援上’을 ‘아랫사람을 능멸하지 않고’, ‘윗 사람에게 서운해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는 의미이다. 이 문장의 마지막 구절인 ‘上不怨天, 下不尤人’까지 연결하여 고려해볼 때에 援을 ‘怨’, ‘恨’, ‘憾’의 뜻으로 푸는 편이 더 타당하다고 볼 여지는 없겠는가? 주제넘게 按說을 내어본다면, 陳淳의 견해보다 지금 여기에 제시한 해석이 보다 합리

적이라고 생각한다.

3) 經文의 文學的 장치 이해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해석이나 새로운 해석을 열어주는 것에 音注의 기본적인 역할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音注의 역할이 해석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音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經文의 文學的 裝置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經書의 經文은 그것이 聖人의 사상을 담은 思想書요 哲學書이기도 하려니와 그 자체로 하나의 위대한 文學書이기도 하다. 경서를 읽는 이유에는 이른바 ‘道’라고 불리는 성인의 思惟를 배우려는 목적이 가장 큰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 사유를 담은 문장을 배우려는 목적도 적지 않다. 經書는 후인들에게 사상의 지침서이자 동시에 문장의 표본이기도 한 때문이다.

문장에서 문학성을 논할 때 比喻나 反語 또는 시각적 이미지 등 다양한 장치들을 들 수 있겠는데, 이들과 함께 반드시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음악성이다. 음악성은 平仄의 聲調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또 韻律이라는 말로 집약되듯 ‘韻’을 가지고 논의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이다. 경서에서 聲調와 韻律이라는 음악적 요소들을 그득 담고 있는 책이 있다면 그것은 『시경』이다. 『시경』은 經 중의 經으로 四書에 매우 많이 인용되어 있고, 그것이 四書의 문장에 음악적 요소를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시경』의 문장이 사서에 인용되었을 때 先學者들은 다행히 그것을 오직 해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고루함에 빠지지 않는 않았다. 詩가 지닌 음악성도 가급적 살려내려 한 것이다.

① 『대학』 전10장 : 詩云, 樂只君子, 民之父母. 【樂, 音洛. 只, 音紙.】

위의 인용문은 ‘只’의 음가를 밝혀준 부분을 예시한 것이다. 漢字·漢文 문화권에서 ‘只’는 초급 한자 중에 초급 한자이다. 그 발음이 ‘諸氏切-지

-zhǐ이고, 허사로 잘 쓰인다는 것은 아주 어린 아이도 모두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글자에 굳이 ‘音紙’라는 음주를 달아준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용된 문장이 『시경』의 詩이므로, 平仄 정보 곧 이 글자가 ‘上聲’이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음악성이라는 문학적 장치에 관한 정보 전달이다.

- ② 『중용』 제16장 經文：詩曰，神之格思，不可度思，矧可射思。【射，音亦。】
 ③ 『중용』 제29장 經文：詩曰，在彼無惡，在此無射。庶幾夙夜，以永終譽。【射，音妬，詩作鞞。】

漢字·漢文 문화권에서 聲讀의 教授·學習 전통이 거의 사라진 오늘날엔 ①과 같은 平仄의 음주 정보는 그 효력을 실감하기 어렵다. 하지만 韻字는 조금 다르다. 여전히 문장에서의 음악성을 비교적 용이하게 체감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②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射’은 ‘神夜切[사]’, ‘食亦切[석]’, ‘羊益切·鞞[역]’의 세 음가가 있다. 그런데 ②에서 ‘射’은 ‘格’, ‘度’와 함께 入聲의 韻字로 쓰였기 때문에 음가를 밝혀준 것이다. 이 문장에서 음주는 ‘싫어하다’라는 훈석으로 해석하라는 정보도 담고 있지만, ‘이 글자가 韻字이다.’라는 정보를 표시하여 경문의 음악성을 보여주는 역할도 한다는 말이다.

재미있는 것은 ③이다. ③의 ‘射’는 ‘鞞’의 古字로 通用한 예이다. 이 문장은 『시경』 「振鷺」의 원문에는 ‘在此無鞞’으로 되어 있다. 뜻은 ‘싫어하다.’이다. 문제는 음가이다. ‘鞞’에는 入聲의 ‘羊益切·역’과 去聲의 ‘丁故反·妬-두’라는 두 가지 음가가 있기 때문이다. 『시경』의 해당 부분에는 ‘丁故反’이라는 음주를 달아놓았고, 『중용』에서는 ‘音妬’라는 음주를 달아놓았다. 모두 ‘去聲, 두-du’로 읽으라는 표시이다. ‘惡’, ‘夜’, ‘譽’와 함께 운자가 되는 글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시경언해』와 『중용언해』에서는 ‘在此此차無무射射역’이라고 음을 달았다. ‘입성 역’일 때의 正訓이 ‘싫어하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자가 叶韻의 韻字임을 고려한

다면 諺解의 음은 재고되어야 한다. 대전본 음주를 만든 학자들이 經文에 깃든 음악성을 전달하기 위해 거듭거듭 聲調와 음을 밝혔지만, 諺解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의도를 놓쳐버리고 만 것이라 짐작된다. 요컨대 經文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본 절에서 예시한바 음악성과 같은 문학적 장치를 알려주는 音注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3. 남은 문제

大全本의 音注에 대한 연구에는 몇 가지 난제가 있다. 가장 먼저 만나는 문제는 대전본 音注의 反切과 『廣韻』, 『集韻』, 『正韻』 등 중국 대표 韻書의 反切이 상당 부분 다르며, 대전본 音注의 反切을 다른 문헌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앞서 ‘黻-dü’에 대해 대전본에서는 ‘丁故反’이라고 표시하였지만, 『광운』 등에서는 모두 ‘當故切’로 표시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는 글자에 따라 해당 음주 정보를 왜 달아놓은 것인지 그 목적과 역할을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는 점이다. 『중용』 제31장 경문 ‘聲名洋溢乎中國, 施及蠻貊.’ 아래 【施, 去聲.】이라는 음주가 달렸다. ‘施’가 거성일 때에는 두 가지의 음가와 훈석이 있다. 하나는 ‘施智切’로 ‘은혜’의 뜻이고, 하나는 ‘以跂切’로 ‘이어지다, 미치다.’의 뜻이다. 따라서 ‘去聲’이라고만 해놓으면 ‘은혜가 만맥에까지 미친다.’라고 誤讀할 소지가 생긴다. 이런 중요한 지점에 대한 음가 정보를 왜 ‘音以’나 반절 ‘以跂切’의 형식으로 하지 않고 굳이 ‘去聲’으로 표시했단 말인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셋째는 四書의 각 책마다 음주의 형식이 다른 곳이 많으며, 같은 품사, 같은 훈석의 글자에 대해서도 상이한 反切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省’은 ‘반성하다’의 훈석도 가지고 있고, ‘생략하다’는 훈석도 가지고 있다. 『대학』 전3장의 장구 ‘省察克治之功’와 『중용』 제1장 장하주 ‘存養

IV. 나가며

부분은 전체를 담고 있고, 전체는 부분에 자신을 現象한다. 무슨 거창한 이론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예는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音注 정보를 간과해온 논자의 經書 읽기 습관은, 물론 근본적으로 나태하고 아둔한 논자 개인의 졸렬한 천성에서 비롯된 것임에 틀림없다. 여기에도 漢字의 音價와 訓釋, 字形의 分化 또는 變化, 품사와 문법적 기능, 문헌대조를 통한 文字 考證과 辨析 등 小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를 키웠다. 그런데 졸렬한 천성이야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라 하겠지만 ‘小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만한 점이 없지 않다. 논자 개인의 내면에 자리한 이 문제에는 우리 경학계 전체의 문제가 얼마간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 경학계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지적할 수 없지만, 經學 가운데 특히 小學 방면에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관심이 적었다. 이는 中日 학계와 비교해볼 때 그 차이가 더욱 명징하게 드러날 듯하다. 중국이야 漢字·漢文 文化圈의 宗主國으로서 小學 방면에도 일찍부터 눈을 돌려 경문 해석에 걸출한 성과를 이루어왔거니와 우리와 마찬가지로 漢字·漢文을 수용해서 사용해온 日本만 하더라도 경문 해석에서 漢字의 音訓 및 字形 고증을 매우 중시한 흔적이 보인다. 말하자면 논자에게 보이는 ‘小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은 우리 경학계가 지닌 ‘小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는 문제가 한 개인에게 現象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소 장황한 변설을 늘어놓았지만, 결코 논자 개인의 문제를 학계 전체의 문제로 확장시켜 다소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함이 아니다. 오히려 小學에 힘을 쏟는 사람들을 향해 ‘근본적인 문제(道와 義理)를 외면한 채 지엽적인 문제에 穿鑿한다고 낮잡아보던 오랜 관습적 사고가 우리 사유의 저 밑바닥에 은밀하게 깔려있지나 않은지 오히려 통렬히 반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大全本 音注를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여 간과해온 경서 해석과 교육의 모습에 대한 반성이 小學을 輕視해온 우리의 학문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 이어진다면, 그 성찰이 마침내 우리 경학의 밑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전망한다. 본고는 그 성찰을 위해 우선 대전본 『대학장구』와 『중용장구』에 한정하여 그 문제적 지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경서 읽기의 가능성을 진단해본 것이다.

<參考 文獻>

『論語集注大全 附諺解』, 경진내각, 학민문화사 영인.

『大學章句大全 附諺解』, 경진내각, 학민문화사 영인.

『孟子集注大全 附諺解』, 경진내각, 학민문화사 영인.

『中庸章句大全 附諺解』, 경진내각, 학민문화사 영인.

『書經集傳大全 附諺解』, 경진내각, 학민문화사 영인.

『禮記正義』, 中華書局, 1980.

儒教經典講究所諺譯叢書, 『大學諺解』, 京城印刷所, 1922

儒教經典講究所諺譯叢書, 『中庸諺解』, 京城印刷所, 1922

『교학대한한사전』, 교학사, 1998.

『한어대사전』, 중국한어대사전편집위원회, 1986.

『한한대사전』, 민중서림, 1997.

배은한, 『한국한자음 표준화방안 연구』, 한국고전번역원, 2016.

성원경, 「반절의 기원과 내용 고」, 『국어국문학』 55~57합卷, 국어국문학회, 1972.

이규필, 「朝日 經學界의 風土와 注釋 樣相 比較」, 『남명학연구』 제52집, 남명학연구소, 2016.

임동석, 「사서집주 음주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19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2.

_____, 「사서집주 반절음 연구」, 『동방학지』 제125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4.

_____, 「사서집주 성조변별식 음주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26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4.

Abstract

*A Study on the Phonetic system of Collected Annotations on the Four Chinese Books of Daejeonbon – Focused on the Great Learning and the Doctrine of the Mean / Lee Gyu-pil**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honetic features (音注) of *Daejeonbon*(大全本), a variorum edition of the *Four Chinese Books*(四書音注), via examining how the study of its phonetic characteristics consists of a significant part of comprehension and explication of the *Four Chinese Books*, particular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the text at Chinese language training institutes or in the college classroom.

Learning the *Four Chinese Books* in the Joseon Dynasty was rendered entirely through the collected annotations of *Daejeonbon*. And the current education of the Chinese classics is still performed with the particular edition because many of the specialized training institutions and departments of Chinese literature and language in the universities of South Korea are still in use of the annotated collections of the *Four Chinese Books* as the primary text to learn it. Granted that the arrangement for the phonetic study should be done for the entire *Four Chinese Books*, the main discussion of this article is converged around the *Great Learning*(大學) and the *Doctrine of the Mean*(中庸). Hence, this essay is primarily focused on the phonetic subject of the two classic texts in order to clarify my argument.

The phonetics features of the edition can be divided into six parts: Tones(聲調), Ruzi(如字), Reading(讀), Sound(音), Fancie(反·切), and combinations of the two or more. Based on the classification and the explication of those different type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blems in establishing the Neo-Confucius view of the Chinese classics,' 'the problems of Neo-Confucius scholars' interpretation of the classical texts', and 'the close reading and new interpretation of Zhu Xi's Annotation (章句集注)'. In addition, I examine such phonetic dimensions as 'the precise phonetic values and the pronunciation system of the Chinese in Joseon Dynasty', also investigating the 'literary

* Researcher of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ungkyunkwan Univ. /
gdfeel@hanmail.net

device and musicality of the Chinese classics' together.

Throughout the discussion, this study reasons the purpose of attaching the phonetic annotations to the variorum edition of the Four Chinese Books. In so doing, I come to conclude that the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the phonetic features of the Confucius classics comprises a significant part of the research and education of the Four Chinese Books, especially in our time.

【Key words】 Phonetic System of the Four Chinese Books, Tones and Fanqie, Functional Change of Grammar, interpretation of the Chinese Classical Texts, Pronunciation System of the Chinese in Joseon Dynasty, Literary Device of Chinese Classics.

투고일 : 5월 8일, 심사완료일 : 6월 5일, 게재확정일 : 6월 7일